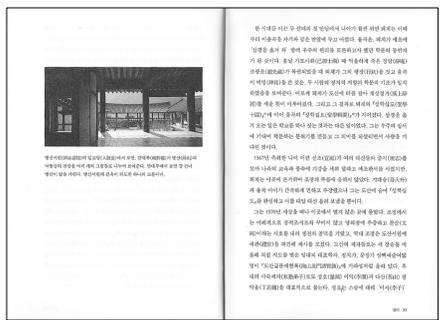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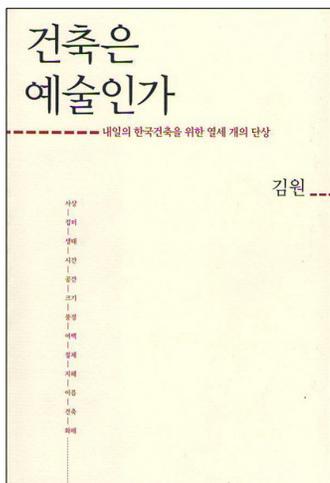


# 건축은 예술인가: 내일의 한국건축을 위한 열세 개의 단상

## Architecture, Art or What?: Thirteen Humanized Views on Korean Architecture of Tomorrow



저 자: 김원  
출 판 사: 열화당  
출 판 일: 2007년 12월



김 현 섭 / 정희원, 고려대 건축학과 조교수  
Kim, Hyon-Sob / Assistant Professor, Korea University  
archistory@korea.ac.kr

아돌프 로스의 건축과 예술에 관한 개념에 대해, 다시 말해 건물을 포함한 일상용품에서 예술 개념을 배제한 로스의 아이디어에 대해 강의하던 날, 나는 김원 선생으로부터 『건축은 예술인가』라는 매우 진부한 제목의 책 한권을 받게 되었다. 서구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다양한 논의가 있었고, 그래서 닳을 대로 닳아버린 이 주제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지적인 건축가가 다시 끄집어낸다는 것은 껍이나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다. 영문 제목은 어감이 상당히 다르지만, ‘건축은 예술인가’라는 질문은 이미 ‘건축은 예술이 아니다’라는 뻔한 답을 내포하고 있을 것이다. 내심 건축이 갖는 명백한 예술 요소들을 제시하며 반론을 펼쳐 보리라 하는 치기도 샘솟았다. 비록 제일 말석이긴 하나 헤겔도 예술 체계 가운데 건축을 얹지 않았나? 지극히 단순한 감이 있지만, 조나단 해일 같은 최근의 연구자는 건축을 공학적 측면과 예술적 측면으로 조명한 후 예술의 측면 위에 방점을 찍기도 했다 (Jonathan Hale, *Building Ideas*, 2000). 건축이 그저 공학의 결과나 기능만의 산물을 넘어서 무언가 해석할 건덕지가 있다면 예술의 범주에 속한다는 논리에서였다. 한편, 이 책의 부제 ‘내일의 한국건축을 위한 열세 개의 단상’은 보다 추상적인 ‘건축은 예술인가’라는 제목에 비하면 구체적이고 다소 지엽적이라는 느낌마저 든다. 과연 무슨 말씀 나누시려는 겐가? 어디 한번 책을 펼쳐 보자.

민현식의 서문에 이어지는 ‘차례’ 페이지에는 김원의 단상 열셋이 세로로 죽 나열되어 있다: 사상-집터-생태-시간-공간-크기-풍경-여백-절제-지혜-이름-건축-화해. 그다지 예민하지 않은 독자라도 한글 제목에 병치된 영어와 한자 표기가 일상적 용법과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눈치 챌 것이다. 예를 들자면, ‘집터’를 보다 흔한 ‘垆地’(대지)로 옮기지 않고 ‘吉地’(길지)로 표기해 풍수적 관점을 넘기지 못했다. ‘Landscape’라는 주제를 ‘조경’ 대신 ‘풍경’으로 적은 것도 비슷한 연유인 듯하다. 그리고 굳이 한자어를 쓸 필요가 없는 말에는 문자적 불일치에 관계없이 순우리말을 사용했다. ‘規模’(규모)나 ‘名稱’(명칭)을 ‘크기’와 ‘이름’으로 쓴 것이 그 예이다. 즉 이러한 우리의 사상이나 말에 대한 작지만 자상한 배려가 글자 표기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뭐, 책의 형식은 그렇다 치고 내용으로 돌아가 볼까. 그런데 글씨 예상과 달리, 이 열세 개의 단상은 왠지 ‘건축예술론’이니 ‘비예술론’이니 하는 것과는 그다지 연관이 없어 보인다. 그리고

차례

민현식 · 서문	5
Thoughts 思想 사상	13
Site 土地 집터	25
Ecology 生態 생태	38
Time 時間 시간	54
Space 空間 공간	65
Scale 規模 크기	79
Landscape 風景 풍경	91
Empiness 餘白 여백	107
Moderation 節制 절제	120
Wisdom 智慧 지혜	132
Name 名稱 이름	144
Architecture 建築 건축	158
Reconciliation 和解 화해	174
註 주	193
참고문헌	216
후기	218
찾아보기	221

실제로 그 내용 자체는 이러한 논쟁과 관계없이 우리의 전통건축에 대한 찬찬한 해설이 주류를 이룬다. 첫 꼭지의 첫 문장이 이미 이러한 분위기를 일찌감치 예견하고 있다: ‘한국의 고건축(古建築)은 대부분 그것을 만든 사람들의 사상을 표현하고 있다.’ 좀 무모하긴 하지만 굳이 처음 열두 단상을 요약하자면 이렇다. 한국의 건축은 우리 선조들의 사상과 철학의 표현으로서 매우 친환경적이자 생태적이며 소박함과 절제미와 자연스러움과 유유자적함이 있고, 단지 축조하는 것 이상의 ‘경영(經營)’의 의미가 있으며, 보다 보편적인 인문학

으로 이해해야한다. 이렇게 볼 때 이 책의 제목은 오히려 그가 일찌감치 번역했던 지오 폰티의 『건축예찬』을 본따 『한국건축예찬』이나 『한국전통건축예찬』이라 하는 것이 더 어울리지 않나 하는 생각까지 든다. 스물일곱 컷의 도판 역시 모두 우리의 옛 건축이나 풍경 사진이니 이런 생각이 그리 억지만은 아닐 것이다.

여기까지 김원의 한국건축론에는 사실 그리 색다른 이야기가 두드러지는 것은 아니다. 단, 그의 글이 가진 가장 큰 강점이라면 탄실한 문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탄탄한 독서라 할 만하다. 과하지 않은 글발은 하고자 하는 말을 절제 있게 전한다. 그리고 그의 풍부한 문헌 참조는 폭넓은 관심과 박학을 자랑한다. 더구나 한 페이지에 여백을 충분히 두고 간소하게 설명을 곁들여 흑백 사진을 배치한 것은 마치 한 폭의 수묵화를 보는 듯하다. 저자는 필시 시, 서, 화에 능한 조선 선비의 품세를 가졌을 게다. 이리 볼 때 그의 관점이 주장하는 것만큼, 김원은 충분히

인문학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우리 건축에 대한 입장에 실족(失足)의 위험이 이따금 발견되는데, 이는 우리 것에 대한 지나친 미화가 아닐까 싶다. 이런 경우 대체로 의도하지 않은 배타성이 종종 표현되곤 한다. ‘서양 사람들은 돌을 쌓아 영구불멸을 희구했지만 그것은 불멸이 아니다. 그냥 오래가는 듯이 보이는 것이다’ (55쪽); ‘한국의 건축공간이 담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인간활동은 “독서”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서양의 건축공간에서 잠자고 밥 먹고 배설하는 동물적 행위가 우선시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70쪽). 서양 사람들이 들으면 얼굴 붉힐만 하지 않나? 이렇게 주관적인 생각은 스스로가 경계했던 오리엔탈리즘의 역(逆)인 옥시덴탈리즘을 가감 없이 드러낼 뿐만 아니라, 자신이 서술한 객관성의 갈구와 크게 배치된다: ‘사실 우리는 극단적으로 자화자찬하거나 자기비하하거나 두 가지만 하면서 제삼자에게 물어보거나 평가받는 일에 등한했다’ (184쪽). 우리가 서양건축을 빗대어 우리 건축을 도드라지게 하는 수법은 사실 일본인들이 이미 오래전에 했던 그것과 많이 닮아 있다. 한 예로 요시다 테츠로의 글을 보자: ‘서양건축은 일반적으로 자연에 대해 지배적이고 대립적이지만, 일본건축은 원시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자연과 조금도 대립하지 않고 전적으로 그것과 동질적 조화를 갖는다는 것이 특색이다’ (吉田鐵郎, 『建築意匠と自抑性』, 1942). 이런 류의 서술은 오랜 기간 타자로 치부되었던 비서구권 문화의 건축미학에서 비슷하게 나타나는 공통사항이 아닐까? 저자가 인용했던 부르노 타우트는 서양 건축가들에게 널리 읽힌 요시다의 『Das japanische Wohnhaus』 (1935; 일본의 주택)에 대해 일본을 이상화하여 현실로부터 격리했다며 혹독히 비판한 바도 있다. 이러한 비판은 우리의 건축론에도 적용될 법하다. 분명 우리는 우리 건축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느낄 줄 아는 심미안을 함양해야하고 널리 자랑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그 장점을 바다 밖 사람들도 수긍할 수 있는 논리로 해석해내야 할 것이다. 민현식의 말대로 김원의 행보가 ‘국경 밖으로 나가는 발걸음’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일 터이다.

그러나 저자 김원이 정작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바는 마지막 꼭지인 ‘화해’에 와서야 그 모양새를 온전히 드러낸다. 그가 앞의 열두 단상에서 열심히 설파한 한국 건축의 건강함, 아니 그 건강함을 있게 한 우리의 사상과 지혜가 오랫동안 존재

했던 인류의 반목과 대립을 치유할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가 몇 차례가 인용한 영조대왕의 말처럼 ‘좋은 뜻으로 하는 일은 그 결과가 좋다.’ 우리는 ‘우리가 훼손한 자연에 사죄하고 화해를 청해야 한다’ (178쪽). 더 나아가 김원은 우리의 개인주의와 민족주의, 서양과 동양의 이분법에 화해를 제의한다. 이는 ‘예술’의 개념이 아닌 ‘인문학’의 개념을 통해서야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이 책 제목의 존재근거가 있다. 그에게 있어서 ‘건축은 예술이 아니다.’ 왜냐하면 예술은 감동을 주어야 하는데 (허버트 리드의 예술론), ‘건축은 보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186쪽). ‘건축은 예술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그의 대답은 지극히 느슨하고 낭만적이다. 글 서두에서 제기한 이성적 의구심에 대한 다른 차원의 답이다: ‘도의 단계에 이르면 세부의 완결성은 크게 의미가 없어진다’ (163쪽). 서양적 질문에 대한 동양적 답이랄까? 어찌되었건 그에게 건축은 ‘보편적 일반해’가 부재한, 한두 사람의 스타 건축가가 창조하는 예술적 창작의 산물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는 그의 또 다른 역서인 B. 루도프스키의 저서 『건축가 없는 건축』을 떠올리게 된다) 좋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지혜이자 인문학의 결과이다. 우리 건축에 이러한 인문학의 결과로서의 보편성이 있고, 이것이 내일의 인류 건축문화를 이끌어 갈 수 있다고 김원은 주장하는 것이다. 이 가슴 설레는 주장을 한국인으로서 어찌 뿌리칠 수 있으랴? 술한 질곡의 역사를 거치면서도 곳곳이 계승해온 우리의 문화와 건축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는 이 비전은 대한의 건축계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다. 그러나 역시 이러한 주장에는 마찬가지로 ‘왜 꼭 한국일 수밖에 없느냐’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비록 그가 몇몇 해외의 학자들을 인용하여 21세기 한국의 지도적 위치를 논증하긴 하지만 개연성을 넘어선 필연성을 찾기에는 여전히 만족스럽진 않아 보인다.

하지만 어찌 보면 이 책의 내용 자체를 글자 하나하나의 논리적 연결고리로 해석하려는 것 자체가 모순일지도 모른다. 저자가 ‘후기’에서 암시하듯 이 책은 치밀한 논리로 콤팩트하게 구성된 ‘학술논문’이 아닌, 보다 여유롭게 써내려간 수상집(隨想集)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오히려 이 저작은 어떤 학술논문 이상으로 값진 식견을 우리에게 선사한다. 즉 불투명한 우리 건축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하나의 선언서로

서 말이다. 더불어 이 책은 단절된 아카데미와 대중 사이를 가로지르는 훌륭한 가교의 역할도 하고 있다. 이는 또 다른 차원의 ‘화해’인 셈이다. 이것이 바로 지극히 인문적 건축가 김원이 우리에게 선보인 드문 재주라 하겠다.☐